

무안군, 인구 증가율 상승... '10만 인구' 총력

2024년 전년 대비 2.65% 늘어 전국 266개 기초단체 중 13위
신혼부부 유입·문화시설 확충
18세까지 1억2천만원 지원도

무안군의 2024년 기준 인구가 전년 대비 2391명 늘어나며 인구증가율 2.65%를 기록했다. 군 단위 지자체 중 전국 1위 수치로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10만 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2024년 12월 말 9만2687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3월 말 기준 9만3446명으로 3개월 만에 인구 759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4년에는 547명의 아기가 태어나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34명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10%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군은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남악·오룡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꾸준한 유입과 농촌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도시재생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무안에서 태어나 자란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2000여 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인구·출산 정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인구 증가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의 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증가는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10만 인구 달성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범씨 온탕소독 무료 서비스 실시 신안군, 5월31일까지

신안군은 올해 벼농사에 앞서 범씨 온탕소독 무료 서비스를 1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씨 온탕소독은 소독기를 이용해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후 찬물에 바로 식혀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으로, 키타리병, 도열병 등 종자전염성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각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 예약한 후 마른 종자를 10kg 망사 주머니에 가져와야 온탕소독을 진행할 수 있다.

범씨 온탕소독은 지난해 1072개 농가가 이용해 321톤을 소독, 벼농사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신안군은 안전한 온탕소독을 위해 사용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기와 온탕소독기 사전점검 등을 완료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는 보급급 벼 종자는 미소독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비 지원 완도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완도군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운임 지원 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며 오는 12월19일(예산 소진 시 종료)까지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 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택배비는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증빙 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운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 및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영암경찰, 안전한 학교 조성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암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허위영상물 제작 등 범죄 예방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정환 영암서장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영암경찰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 영암군, 기부 제도 활성화

영암군이 최근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참여→고향사랑기부제→명예의 전당'의 경로로 들어가면 제도가 생긴 2023년부터 연도별로 기부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이름과 직함, 기부금액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로 영암에 보내준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다"며 "소중한 기부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의미 깊은 기금사업으로 정성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봄맞이 고향사랑기부 참여 이벤트로 이달 말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청 직원들이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해충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관내 저소득층 가구 해충 방역 소독

무안군이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사업인 '해충 방역소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무안지역자활센터 행복드림세탁 사업단과 협력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동빨래방 차량을 통한 세탁 서비스와 해충 방역소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활기금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을 구입, 무안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

행복드림세탁 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전문 장비를 갖춘 이동빨래방 차량을 활용해 각 마을

을 순회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월부터 시작된 해충 방역소독은 세탁 서비스와 함께 제공돼 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환경의 청결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영선 무안군 사회복지과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지방 세수 확보... 체계적 징수 활동 강화

16억원 징수 목표

완도군은 지방 세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근 '2025년 제1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는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 및 세정 업무 담당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올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9억원이며 올해 총 16억원 징수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체납 차량 집중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지방 세입 징수액을 높일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비롯해 체납 차량에 대한 읍면 간 합동 교차 단속 강화,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체납 건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 관여 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단행하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최대한 독려해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납세자 배려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우 완도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의 자주 재원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체납액 감소와 올해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